

플로베르연구의 '놀랍도록 행복한' 성과

金容銀의 불어판 연구서 「성 앙트완느의 시련—생성과 구조」

黃鉉産

강원대 교수 · 불문학

제목을 「성 앙트완느의 시련(1849년판) — 생성과 구조」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방대한 논문은, 그 전체가 순전히 불어로 씌어졌다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우리에게 여러가지로 생소한 것들을 담고 있다. 플로베르는 분명 널리 알려진 작가이지만, 「성 앙트완느」에 관해서라면, 「聖 앙트완느의 誘惑」(홍승오 역, 1972년, 正音社)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말 번역본이 출간되었다는 사실까지도 거의 잊혀져 있다. 외국문학 연구가 장르와 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우리의 실정에서 어느 단일한 장르나 어느 단일한 사조로 환언되기 어려운 이 작품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그만큼 미미하다. 게다가 김용은 교수의 이 저서는 이른바 그 결정본인 1874년판이 아니라 1849년판을 대상으로 삼는다. 부제에 나타나는 '구조'라는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생성'이라는 말이 또한 문제다. 이 말로써, 한 작가가 한 작품에 대한 착상을 얻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연구, 집필의 전 과정에 대한 고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외국문학을 받들고 추종해야 할 어떤 선진적 모범으로만 여기려는 의식에게는 필경 불필요한 노력으로 여겨질 것이 분명하다. 사실 김교수는 이 논문에서 프랑스의 플로베르 학자들도 읽기를 주저한 여러 手稿들을 최초로 활자화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우리는 왜 이러한 연구에 우리가 천착해야 하며, 이 책을 출간해야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며 의아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야심적인 논문은 이 모든 물음에 대한 대답을 암암리에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저서는 논문을 쉽게 쓸 수 있는 모든 길을 극력 피해간다. 「성 앙트완느의 시련」처럼 그 외양이 혼란된 작품을 대상으로 삼는 연구자가 흔히 유혹받기 쉬운, 그 저자나 주인공에 대한 정신분석이 여기서는 결코 감행되지 않는다. 기호학적 환연이나 구조주의적 도표가 없다. 주제 이미지의 중첩도, 무의식 도출 방식의 무대연출도 없다. 이 연구자는 그 대상을 그렇게 폐쇄되어 그렇게 존재하는 '작품'으로만 간주하지는 않으며, 그것과 자기 사이에 '과학'이나 '보편성'이라는 이름의 거리를 두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연구자의 방법을 '역사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한 작가의 생애를 점철하는 전기적 요소들이나 한 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열거하고 거기서 한 작품의 결정요인을 발견·결합하는 것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프랑스현지의

플로베르학자들도 읽기를 주저한

여러 手稿들을 최초로 활자화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는 책을 쉽게 쓰는 모든 길을

극력 피해간다. 수고들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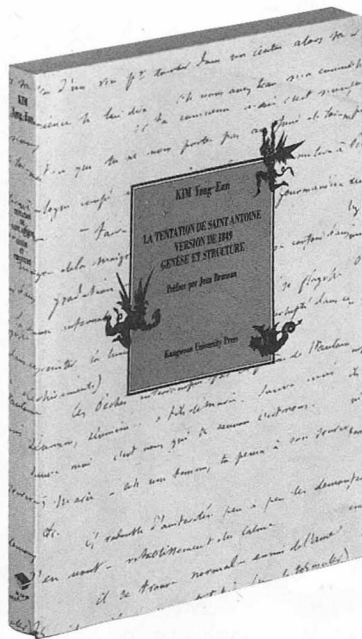
힘겹고 '메마른 작업'을 통해

시적이라 이를 만큼 독창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자는 작품이 집필되는 그 현장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고뇌하고 방황하는 작가의 생애의 한 점에 그 얼굴을 만들어 주고, 그가 견디고 투쟁하는 역사의 한 시기에 그 구체성을 부여한다. 작품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고유명사들, 밀도 짙고 없이 이어지는 종교적·철학적 이론의 단편들을 주석하고, 저자의 노력에 결코 굴복하려 하지 않는 手稿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는 이 메마른 작업이 시적이라고 이를 만큼 독창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저자는 우선 이 작품의 혼란된 양상을 묘사한다. 사건의 부침을 따라가는 소설적 상상력으로도, 파국의 절정에서 갈등의 해소를 발견하려는 연극적 상상력으로도 이 작품의 통일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다른 모든 비평가들의 실패와 그 자신의 실패가 길게 열거된다. 이 혼란의 열거 속에는 분명 서양의 다양한 지적 전통과 한 작가의 막중한 노력 앞에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살아온 한 연구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당혹감이 들어 있다. 이 당혹감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정식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로부터, 위에서 이야기한 그 메마른 작업이 시작된다. 이때 이 당혹감은 한 외국문학 연구자의 당혹감으로 끝나버리지 않는다. 자신의 혼란을 직시하는 연구자는 바로 그 혼란을 통해서, 스물 일곱의 나이에 문학세계로의 통과례를 거치고 있는 플로베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정신적 혼란과, 말의 엄밀한 의미에서 '현대'의 길목에 들어선 한 사회의 시대적 혼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 이른



다. 우리의 외국문학 연구가 언제까지나 피해갈 수만은 없는 긴 터널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이며, 연구자는 이제 자신이 탐구해야 할 영역의 변두리만을 돌게 되지는 않는다.

김교수의 연구는 「성 앙트완느의시련」에 관해 「내 필생의 작품」이라고 했던 플로베르 자신의 말로부터 시발한다. 플로베르는 1849년 이 작품의 제1고를 친구들 앞에서 낭독했으며, 1856년에는 제2고를 완성하여 그 일부를 「아르티스트」誌에 발표한다. 결정본이 출간된 것은 작가가 죽음을 맞이 여섯해 전인 1874년의 일이다. 게다가 1849년의 제1고를 역어내기까지에도 다섯차례에 걸쳐, 각기 독립된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섯 단계의 시나리오를 썼다. 김교수는 이 시나리오의 手稿(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초고집)를 읽고 그것을 활자로 복원하기에 성공한다. 이 끈질긴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플로베르가 「앙트완느」를 준비하며 읽었던 수많은 책들을 함께 따라 읽음으로써, 한 문학지망생의 방황과 고뇌를 한 지적 전통의 맥락과 한 시대의 역사 속에 위치시키고, 한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시대의 문제를 수용하려는 노력 속에 어떻게 예술가적 상상력이 성립되는가를 밝힌다.

「성 앙트완느의 시련」에서는 여러 종류의 악마들과 더불어 인간의 탈을 쓴 갖가지 추상적 개념들이 등장하여 끝없는 토론을 벌인다. 무엇보다도 과학과 종교,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지혜가 문제된다. 김교수는 서로 유리되고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종교들이 각기 한 시대의 과학적 결론이며, 그 신들은 모두

그 과학이 지니는 자연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종교와 과학의 대립은 낡은 지식체계와 새로운 지식체계의 갈등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와 신에게는 저 수수께끼의 스팅크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 스팅크스는 각각의 신이 어떤 개념으로 한정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그 종교에 깊이를 주지만, 그와 함께 신의 근본으로부터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 종교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의 지식 체계로 향하는 길을 연다. 역사의 상승을 추진하는 이상한 에너지인 이 스팅크스는, 김교수가 보기에 詩, 시적 상상력과 다르지 않다. 앙트완느가 악마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은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써가 아니라, 미래의 과학—자연의 섭리와 과학이 완전히 결합된 대문자의 '과학'(Science)—의 이름으로써이다. 종교와 '종교'사이에, 과학과 '과학'사이에, 그 자체가 거대한 스팅크스인 플로베르의 「성 앙트완느의 시련」이 놓이게 된다. 하나의 예술이 되어 종교와 과학을 그 속에 용해하려는 한 젊은 열망이 이렇게 그 얼굴을 연다.

한편, 이 책에는 모든 페이지의 하단마다 깨알 같은 글씨의註를 가득 담고 있다. 저자의 정열과 인내력을 짐작하게 하는 이 주석은 특히 「앙트완느」와 그 동시대의 작품에 자주 출몰하는 파우스트, 카인, 방랑의 유대인 아하스베루스 등 낭만주의의 비범한 주인공들에게 많은 분량이 할애된다. 그들은 모두 시대의 반항아들이며 동시에 그 시대의 억압에 의해 왜소화된 인물들이다. 그들에 대한 분석은 곧 플로베르의 낭만주의적 정신 속에 사실주의적 미학이 발돋움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해준다.

끝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이기고 이 책의 출판을 담당하신 사람들의 용기와 노력을 기리지 않을 수 없다. 어느 플로베르 학자(고토-메르쉬)는 이 책의 출간을 축하하여 "놀랍도록 행복한 일"이라 하였다. 우리의 학문적 저력과 출판문화의 새 기운이 그토록 행복하게 만난 것이 아니겠는가.